총회 대표성 위원회

공포에 기반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협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한 성명서

2025년 1월 25일 | 오리건주 포틀랜드

COMMITTEE ON Representation

미국장로교 형제자매 여러분께,

지난 40여 년 동안 총회 대표성 위원회(GACOR)의 역할은 미국장로교가 광범위하고 공평한 참여와 다양성을 중심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이를 방해하는 역학 관계에 분명하게 발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공유한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 형평성, 대표성, 다양성을 위해 이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미국장로교와 그 역사적 교단들의 유산에는 분명히 발견의 교리, 인종차별, 노예제도, 인디언 기숙학교, 기타 미국 역사의 수치스러운 현실을 강화하거나 지지하는 운동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또한* 흑인, 원주민, 기타 유색인종, LGBTQIA+ 등이 주도하여 각 시대의 문제에 대해 선지자적 용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 해방과 치유 운동의 유산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는 교회 구성원의 풍부한 다양성 속에 반영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장애, 지역, 신학적 이해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연합하신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중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F-1.0403)

1983년 미국장로교가 창립되었을 때, 우리 교단은 교단의 모든 영역에 대표성 위원회(COR)를 만들어 **완전한 참여, 포용성, 대표성에 대한 헌신을 지속하고 강화했습니다.**

GACOR의 대표성 신학은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친절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1]은 우리에게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갖추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각자가 모든 특수성과 다양성 속에서 그 지체[2]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성원에게 '너는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3]

우리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이라는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한 자유, 포용, 일치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틀 아래서 신앙에 기초한 대표성과 다양성의 작업을 *용기 있게 계속할* 것을 교회, 중간 공의회, 교단 본부에 **촉구합니다**. (F-1.0403)

---

[1] 미가서 6:8
[2] 고린도전서 12:27(참조. 로마서 12:5)
[3] 고린도전서 12:21-26

우리는 이 순간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증거가 *결코* 세속 정부나 행정부의 기대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을 환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리듬에 맞춰 행진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다양성, 상호 배려,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게 인내하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조차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GACOR는 열정, 부지런함, 인내심, 겸손함을 가지고 이 일, 즉 이 소명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유산을 기억하는 주말을 보내며, 1958년 6월 3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 연합장로교 에큐메니칼 선교 및 관계 위원회에 보낸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그가 설교를 되새기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앙심을 가지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마세요. 정의를 위해 나아갈 때는 오직 사랑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품위와 규율을 지키며 움직여야 합니다."**[4]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Anna Kendig Flores, Teaching Elder, *Co-Moderator*
Amanda Pine, Ruling Elder, *Co-Moderator*
Nicole Cruz Talkington, Teaching Elder
Lauren Sanders, Teaching Elder
Adolfo Santana-Cordero, Teaching Elder
Matt Schultz, Teaching Elder
Nathan Sobers, Ruling Elder
Joshua Young, Teaching Elder

---

[4] **사랑의 기능에 대해 :** "우리 철학자 중 일부가 기본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랑과 권력의 개념이 대개 정반대의 극과 극으로 대비되어 사랑은 권력에 대한 체념으로, 권력은 사랑에 대한 부정으로 동일시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의 철학자였던 철학자 니체가 기독교의 사랑 개념을 거부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니체의 권력 의지에 대한 철학을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사상의 이름으로 거부하게 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 없는 권력은 무모하고 폭력적이며, 권력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은 정의의 요구를 구현하는 사랑이며, 최고의 정의는 사랑에 반하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 1967년 8월 16일 애틀랜타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한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연설